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녀는 여우와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곰과 어 속했다. 성격이 순진하고 단순한데도 조금 어 리숙한 부분도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순진한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주 가끔은 왜 그리 요령이 없느냐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유일하게 만져보는 돈인데, 그걸로는 네 식구 생활도 빠듯해 비상금 통장 하나 챙겨두지 못한 그녀였다. 남들은 다들 이리저리 잘도 빼돌려 그걸로 웃고 사고 친정에도 보태는데 그녀는 그런 요령도 없었던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편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애를 태우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면 갖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그렇게 또 한번 넘어가는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두 달 전, 그런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지름신이 강림해 버렸다. 친구를 따라간 백화점에서 너무나 예쁜 가방 하나를 보고 만 것이다. 그녀가 평소에 들고나리는 가방에 비하면 가격이 몇 배나 되었지만 그렇다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 가격은 또 아니었다.

눈 딱 감고 남편에게 사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었다. 평소 그녀라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말을 꺼내거나 그랬을 테지만, 이번에는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평소에 암 하던 요령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샤워에 은근한 향수까지 뿐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 남편의 몸이 동요하지 않을 리 없었다. 잠자리가 꽤 무르익어 남편이 흥분에 다다른 순간, 그녀가 말했다.

“여보,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남편은 생각하고 뭐고 할 것 없다는 듯 바로 외



쳤다. “응, 사줄게.”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걸 왜 여태 물랐을까 싶었다.

그날부터 그녀의 여우 짓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호르몬 때문에 여성적 관관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많은 것을 이를 수 있다니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남편의 성격이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성격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잠자리에서는 오

케이를 와쳐놓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내뱉는 남자였다면 아마 씨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원하는 기분을 얻고 일주일쯤 지났을 것이다. 이번에도 잠자리에서 남편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는 웃소리를 잔뜩 내며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도 김치냉장고 사자. 친구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

남편이 흥분에 다다른 순간

“가방 사줘” “냉장고 사줘”

어느 날 남편이 유난히 노력하더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낚시 갈게”

남편은 아주 잠깐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흥분한 몸은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래, 자. 내가 사줄게.”

이번에도 무사통과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잠자리 중 요구사항’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담배 좀 줄여라, 뱃살 좀 빼라 같은 간단한 말들도 평소에는 남편의 반박에 끌려 허석되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대로 전달되었고, 남편

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상한 깜새가 느껴진 것은 아주 전의 일이다. 잠자리에서 유난히 남편의 노력이 엿보였다. 평소보다 아무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했다. 당연히 다른 날보다 흥분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적극적인 공세에 휘말려 무엇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린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남편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낚시 좀 다녀올게.”

순간,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자리 효과를 파악해 버린 것이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집요한 남편의 애정공세로 그녀의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 다녀와. 하지만 올 겨울엔 이번이 끝이야.”

남편은 약간 당황하는 듯 보였다. 이상이 마비된 대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났구나 싶었다. 남편이 따라 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없었다.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터득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그건 바로 그녀도 ‘여우과’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예 칼럼니스트)

면서 최요삼 선수의 쾌유를 빌던 네티즌은 끝내 뇌사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은 또 마지막까지 장기기술을 하고 떠나고 최요삼 선수를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웹 피언’이라고 부르며, 추모글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연말 호남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호남폭설’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호남지역의 네티즌은 디카를 통해 30cm가 넘게 쌓인 눈으로 하얗게 변한 동네 사진을 올리며 전국의 네티즌에게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88회 전국체전	공격의 효과 10보(147~170)	바둑 소식
남녀 페어부 결승전	白 이용희 6단 이선아 6단 (서울) 黑 흥석의 7단 김진은 6단 (전남)	‘철녀’ 여류명인전 독주하나
백이 스로	가 했으나 이때 전남팀에서 흑 157 점해서 패가 젖는 강수가 터져나왔다. 이때 나는가 했으나 전남팀이 1로 끊고 3으로 지켜 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흑 4로 147로 슬쩍 있는 수가 공배를 메우게 되어 흑 8 비킨 것이 좋다. 다음 10으로 끼워넣으면 백 대마가 수로 151까지 이곳에 는 차지된다. 그래서 서울팀은 하는 수 없이 158 로 젖었는데 흑 159로 끊어 잡혀서는 죽이 여기에서 공격의 효과를 톡톡히 얻어내고 있다. 귀는 간신히 두집을 내는 정도로 아직도 백 대마에는 가 일수가 필요하다. 백 170은 선수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처럼 보인다. 백 156으로 늘어 백 대마가 살았는	여류명인전을 훔쳤고 있는 ‘철녀’ 류 이나이웨이는 9단이 제9회 대회 결승에 서도 조제연 7단을 누르고 강세를 이어갔다. 루이나이웨이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키아이파크 대국실서 열린 이 대회 결승 1국에서 조제연을 204수만에 불계승으로 누르고 1승을 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다면 이제 백 대마가 비밀 곳은 백 152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도 수가 없 다면 백 대마가 살길은 없다.	다면 이제 백 대마가 비밀 곳은 백 152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도 수가 없 다면 백 대마가 살길은 없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루이나이웨이는 이 대회에서만 6차례 우승을 거두고 있으며, 결승에서 만 난 조제연을 3차례나 꺾었다. 이번 대회는 각자 30분에 초읽기 40 초 3회, 우승 1천300만원 준우승 500만 원이며 오는 19~22일 각각 2·3국을 갖 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88회 전국체전	남녀 페어부 결승전	43년생 신체적 불편이 수도 있으나 자신을 살펴 볼 때, 55년 생 좋은 일은 생기지만 남의 눈길도 보라. 67년생 고여이 접 소련되고 즐거움이 다가온다. 79년생 마음은 하루하 루인에게 보라. 80년생 계획을 다시 한번 접고 행운의 숫자 : 05. 40
남녀 페어부 결승전	백 156으로 늘어 백 대마가 살았는	44년생 애인에게 훔쳤고 81년생 친인척의 불편사가 나에게까지 돌아온다. 85년생 주변을 살펴라. 90년생 계획을 다시 한번 접고 행운의 숫자 : 18. 32
다면 이제 백 대마가 비밀 곳은 백 152가 유일하다.	다면 이제 백 대마가 비밀 곳은 백 152가 유일하다.	45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곧 해결 될 수다. 57년생 집안 모두가 온정으로 품어주고 저녁마다 고기를 불어 달려온다. 69년생 순풍에 좋은 날마다 흐름을 살펴보니 새로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71년생 흐름에 날리니 새로운 형상이 뛰어난다. 74년생 운수는 절대 좋지 않다. 84년생 행운의 숫자 : 15. 33
다면 이제 백 대마가 살길은 없다.	다면 이제 백 대마가 살길은 없다.	46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즐거운 일은 생기지 않고 대인관계에 불편이 있다. 68년생 솔사와 구설이 생기니 이웃과 화해하면 좋으리라. 80년생 계획을 다시 한번 접고 행운의 숫자 : 08. 41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47년생 옆집에 훔친 일은 생길 수도 있으나 조심하라. 59년생 흐 름길로 순체가 발생하거나 크지는 않다. 71년생 가정에서 큰소리 가 외부로 번지면 걱정이다. 83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 며 길사로 연결된다. 87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 웃음이다. 98년생 행운의 숫자 : 07. 4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69>

I sometimes go to my office by taxi
때로는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A : It's quite convenient for me to go to work by subway train.

B : So you don't have to wake up early and fight the traffic jam.

A : Yep! How about you?

B : I sometimes go to my office by taxi, and sometimes by foot. The office is near my apartment.

A :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B : 그러니까 당신은 일찍 일어나 교통체증과 싸울 필요도 없겠군요.

A : 그렇죠! 당신은요?

B : 때로는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걸어서 출근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이 제 아파트하고 가깝거든요.

* Yep! = yes.

* by ~ = ~을 타고서

* It's quite convenient. = It's very convenient

* traffic jam : 교통체증

오하요우 니혼고 <1069>

お壽司(すし)はお酢(す)のこはんで作ったんでしょう?

초밥은 식초 밥으로 만든 것이죠?

A : お寿司(すし)はお酢(す)のこはんで作ったんでしょう?
作り方は簡単ですか。

B : そうですね.僕もちらし寿司(すし)くらいなら作れるんですけど。

A : えっ, ちらし寿司(すし)? 寿司(すし)と言つても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

B : ええ, 手巻(てまき)き寿司(すし)に, 押(お)し寿司(すし)に...とにかくいろいろありますよ。

A : 초밥은 식초 밥으로 만든 것이죠?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까?

B : 글쎄요. 나도 짜라시초밥 정도라면 만들 수 있지만.

A : 예, 짜라시초밥? 초밥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까?

B : 예, 테마끼초밥에, 오시초밥... 어쨌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壽司(すし) : 초밥

酢(す) : 초, 식초

簡單(かんたん) : 간단

니하오 쟁구워 <46>

你打算在哪儿过新年?

넌 어디서 새해를 보낼 생각이니?

A: 新年就要到了。

xīnnián jiù yào dào le.

신년就要 오고 싶모 드.

B: 你打算在哪儿过新年?

Nǐ dǎsuan zài nǎ gǔo xīnnián?

너打算한 데어 나갈 푸에 흰년.

A: 我打算在韩国过新年。

Wǒ dǎsuan zài Hángguó guò xīnnián.

나는打算한 데어 한국에 흰년.

B: 是吗?

Shi ma?

스 마?

A: 是, 새해 구나.

B: 네, 어디서 새해를 부낼 생각이니?

A: 난 한국에서 새해를 부낼 생각이야.

B: 그렇?

新 年 [xīnnián] 새 해, 신년

部 分 [bùfàn] (언·안·한) 부분, 부위

打 算 [dǎsuān] 계획하다

한자 이야기 <686>

담대심소(膽大心小)

담력 담, 큰 대, 마음 심, 작을 소

담대심소(膽大心小)는 담력을 크게 갖되 마음 씀씀이는 세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담력(膽力) 즉 배짱이 크면 웬만한 일에 마음이 동요(動搖)되거나 태연자약(泰然自若)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씀씀이 즉 주의력(注意力)이 세심해야만 실수 없이 세밀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 말은 당시(唐書) 은밀전(隱密傳)에서 손사막(孫思邈)이 말한, ‘담력은 크게 가지